

진로타협과정에서의 성별과 출생순위에 따른 선호도 차이

김 미 연

방 회 정[†]

이화여자대학교

이 연구에서는 진로의사결정에서의 타협과정이 개인의 성별과 출생순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즉, 진로의사결정시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여러 대안들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적 특성에 따라 직업의 사회적 명성, 성특성, 흥미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선호하는지에 관심을 두었다. Holland 이론에 기초한 직업선호도검사와 이기학, 조미량(2003)이 개발한 직업선택타협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개인이 직업의 사회적 명성, 성특성, 및 흥미를 대비시킨 직업쌍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진로타협과정에서의 선호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첫째, 성별에 따라 진로타협과정에서 보이는 선호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직업의 성특성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명성과 흥미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출생순위에 따른 주효과는 없었다. 그러나 진로타협과정에서 첫째아는 직업의 성특성보다는 흥미를 선호하고 둘째아는 흥미보다 직업의 성특성을 선호하는 경향성을 나타냈다. 외동이의 경우 진로타협과정의 세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요약하면, 진로타협의 세요인인 사회적 명성, 성특성, 흥미를 선택할 때 성별에 따른 선호도의 차이가 있었으며, 출생순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출생순위에 따라 상이한 선호도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진로의사결정, 타협과정, 성별, 출생순위

[†] 교신저자 : 방회정,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E-mail : hjbang@hanmail.net

청소년기에 사람들은 전 생애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진로를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최근 수년간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결과 신입생들이 앞으로의 대학생활을 통해 예상되는 걱정거리로 학업과 진로문제를 우선 순위로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광희, 양은주, 최송미, 2001). 생애 처음으로 전공 선택을 준비하게 되는 고교생들의 경우에도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한 진로의사결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진로의사결정에서 개인이 원하는 최고의 것을 선택하는 일이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현실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진로와 현실적으로 가능한 진로 사이에서 그 격차가 가장 작은 최선의 것을 선택해야하는 타협과정이 요구된다. 즉 개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진로와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진로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진로의사결정시에 타협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Gati, 1993).

서구 사회에서는 오래 전부터 진로의사결정에서의 타협과정의 중요성에 대해 적극 논의되어져 왔다. Ginzberg, Ginsberg, Axelrad와 Herma(1951)는 타협과정을 진로선택의 최종단계로 제안하면서, 타협과정이 모든 진로선택의 필수적 요소라고 주장한바 있다. 즉 외적 현실 여건에 맞게 개인의 내적 욕구가 희생되는 과정에서 최적의 만족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 타협의 과정이다(Super, 1984). 근래 우리 사회도 세계화의 급류 속에서 직업세계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엘리트 지향적인 교육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진로 문제가 개인적 선택의 문제인 동시에 국가, 사회적인 관심 영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우리 문화에서는 직업의 의미를 개인적인 성장에 앞서

가족 및 조직에 대한 의무로 생각하며(Gysbers, Hepper, & Johnston, 1998; Osipow & Fitzgerald, 1996), 직업이 개인 자신과 가족의 신분 및 과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진로 타협 과정에 개인의 성별이나 가족내에서의 출생 순위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청소년들의 진로선택에 있어서의 타협과정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기학과 조미랑(2003)이 지적하였듯이 서구의 진로 모형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진로의사결정모형의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인 문화가 강한 우리 사회에서 진로결정시 타협과정의 우선 순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성별과 출생순위를 들 수 있다. 근래 표면적으로는 성이분법적인 고정관념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음에도 전공이나 직업 영역에서 여전히 성별에 따른 보이지않는 경계와 선호가 여전히 현상이다. 꾸준한 여성의 고학력화에도 불구하고 계열별 성별 분리현상은 여전히, 지난 20여년간 공학계의 여학생 비율이 10%이상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모든 계열 중에 가장 적은 여성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더구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보장되는 특정 직업 활동에서의 남녀간의 격차는 거의 극복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다. 이렇듯 진로영역에서 성별간 교육 투자의 차이는 줄어들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성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적인 손실이기도 하다.

진로지도에서의 성별 주제는 간과될 수 없는 이슈이다. 이에 진로의사결정에서의 타협과정을 상술하기 위해서는 진로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적 명성이나 개인의 흥미 변인 외에서 성별의 문제가 함께 고려되

어려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문화의 가족주의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출생순위에 따른 가족기대가 가족구성원의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진로의사결정 타협과 성별

진로의사결정 타협과정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은 주로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이 어떻게 타협해 나가는가에 초점을 두어왔다. Gottfredson(1981)은 최초로 타협과정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경험적 연구를 통해 타협과정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검증하고자 했다. 타협의 과정이 가능한 진로 대안들이 갖고 있는 여러 측면들(예, 사회적 명성, 개인의 흥미 등) 가운데 어떤 것은 포기하고, 어떤 것은 유지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고 볼 때 결국 각 측면들이 갖는 우선 순위가 타협과정의 핵심이 된다. 타협과정에서의 우선 순위와 관련하여 Gottfredson은 성역할이 가장 중요한 자아개념의 측면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측면이 개인의 사회적인 위치(직업의 사회적 지위)이고, 개인의 성격과 흥미는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쉽게 타협하는 측면으로 보았다. 이는 개인이 자신이 기대하는 사회적 지위의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자신의 흥미 영역에 있는 직업을 포기하게 되고, 자신의 성역할에 맞지 않는 직업은 자신의 흥미 영역이거나 사회적 지위가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의사결정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타협과정의 핵심인 타협의 우선순위를 밝히고자 하였으나 일관된 결과들을 보여주지 못했다(Hesketh & Durant, 1990; Hesketh, Elmslie,

& Kaldor, 1990; Holt, 1989; Leung, 1993; Leung & Barbara, 1990; Taylor & Pryor, 1985). Talyor와 Pryor(1985)는 Gottfredson의 입장을 지지하였지만,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 사회적 지위에 민감하고 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해 성역할에 덜 민감하다고 주장했다. 즉 흥미영역, 성 유형, 위신(사회적 지위)의 상대적 영향력이 성별에 따라 다르다고 보았다. 반면에 적지 않은 연구들이 Gottfredson가 제안했던 원리와 다른 결과들을 보여주었다. Leung과 Plake(1990)는 성역할과 사회적 지위의 상대적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직업선택 딜레마 검사(Occupational Choice Dilemma Inventory: OCDI)와 일반특성 조사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직업선택 딜레마 검사는 여러 직업들을 사회경제적 지위 지수(Socioeconomic Index, SEI)와 남성성 우세 지수(Male Dominance Index, MDI)로 나누어 응답자들이 선택한 직업을 사회적 지위와 성 유형으로 해석할 수 있게 만든 설문지이다. 연구 결과 여학생들은 여성적인 직업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을 선호하였으며, 남학생들 역시 직업의 성 특성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일관되지 못한 연구 결과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하려는 후속 연구들이 시도되면서 타협과정은 개인적 변인, 상황의 심각도 등을 고려하면서 보다 다면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그 결과 진로의사결정 타협과정에서 성차, 문화차 등이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즉 진로의사결정에서의 타협과정은 진로영역 이론의 발달 초기부터 진로의사결정의 중요 요소로 연구되어온 이래 현재 많은 연구자들은 타협의 과정을 보다 정확하게 밝히려는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진로 관련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현실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황매향, 김계현 2001).

진로에서의 타협은 자아개념과 현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이다. 이때 개인이 자신의 진로발달, 선택, 수행에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는 진로자아개념과 관련된다. 즉 진로자아개념은 타협의 내적 기반으로, 생애 초기부터 시작하여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발달하게 된다(Vandiver & Bowman, 1996). Gottfredson(1981)에 따르면 진로기대(진로자아개념)의 발달은 여러 가능한 직업에 대한 탐색, 제외 및 선택의 과정과 관련된다. 진로기대 발달의 첫 단계는 3-5세의 시기로, 서열 획득 단계(orientation to size and power)로 명명된다. 이 단계에서 아동은 어른이 된다는 개념을 이해하게 된다. 다음 단계는 6-8세의 시기로, 성역할 획득 단계(orientation to sex role)이다. 이 시기를 통해 아동의 성역할 개념이 확고해진다. 세번째 단계인 9-13세 시기는 사회적 가치 획득 단계(orientation to social valuation)로 사회적 계층이나 능력과 같은 보다 추상적인 자아개념이 사회적 행동과 기대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14세경이 되면 마지막 단계인 내적 자아 확립 단계(orientation of the internal, unique self)에 이르고 자아정체감 혼란을 경험하는 시기가 된다.

위와 같은 발달단계를 통해 보다 분명한 자아와 일 사이의 관계에 대한 기준과 함께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분화된다. 성역할 획득 단계를 거치면서 직업은 성역할로서 적합한 직업과 적합하지 않은 직업으로 인식되고, 자신의 성에 적합하지 않은 직업을 자신이 원하는 직업 목록에서 제외시키게 된다. 예를 들

어 남아들의 경우 간호사라는 직업은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이라고 인식하고 자신이 장차 되고 싶은 직업 목록에서 간호사라는 직업은 제외시킨다는 것이다. 사회적 가치 획득 단계에 이르러 아동이 사회적 계층에 관한 자아개념을 갖게 되면, 낮은 사회적 지위의 직업들 또한 제외시키기 시작한다. 또한 이 시기의 아동들은 자신의 능력을 고려해 볼 때 극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얻기 힘든 직업들도 역시 제외시키기 시작한다. 진로기대 발달의 마지막 단계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흥미, 능력, 가치 등을 보다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자신의 직업 선택의 범위를 축소시키게 된다.

결국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는 상식적 믿음이 성별에 따른 직업과 활동의 구분에 영향을 주게된다. 여성은 친교적(communal), 표현적(expressive) 존재로 지각됨으로써 그러한 특성이 요구되는 교사, 간호사 등의 직업은 여성에게 적절한 직업 유형으로 간주되는 반면에 남성은 행위주체적(agent), 도구적(instrumental) 존재로 인정되어, 사업가, 군인 등은 남성 직업으로 분류된다. 현실적으로도 높은 사회적 지위에 속하는 직업과 활동들은 대부분 남자들에 의해 점유되어 왔으며, 남성적 직업은 더 가치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Stephan & Holhan, 1982). 결국 직업의 성 특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개인의 진로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진로의사결정 타협과 출생순위

한 가정의 형제자매들간에도 행동과 인성, 그리고 능력 등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다른 가정에서 자라는, 형제자매가 아닌 아동들

만큼이나 서로 다르다(Rowe & Plomin, 1981). 이는 가족 구조 내에서 아동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달리 받는 대우나 경험이 출생순위와 관련된 행동적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해석된다(Jacobs & Moss, 1976). 형제자매 관계 자체가 출생시부터 그 순위적 위치를 가지고 태어나며, 형제자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그 지위나 위치 상에 변화가 오게 된다. 첫째아이는 부모들로서도 부모로서의 최초의 경험 대상이라는 점에서 아이에 대한 기대와 의무가 집중된다. 따라서 첫째아는 심리적으로 활동적, 성공적이 되도록 동기화되며, 부모의 기대를 좇는 경향이 높다. 형제자매 관계에서 보더라도 첫째아는 개척자, 안내자, 선동자가 되며, 동생과의 관계에서 상하 관계를 누리게 된다. 그에 따라 첫째아는 다른 형제자매보다 권리상으로 우월감을 느끼게 되고 성취율, 성공률도 높아진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가 하나인지 둘 이상인지에 따라 부모가 각 아동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간과 물질적 자원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첫째아를 양육하는 경우와 이미 자녀를 양육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부모의 행동이 다르다. 첫째아는 육아경험이 없는 젊은 부모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주는 하지만 처음 자녀를 갖는 행복감을 선사해준다. 따라서 첫째아에게 부모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게 된다. 이에 비해 둘째 자녀를 가졌을 때는 첫째아를 키울 때의 강렬한 흥분과 열정은 사라지기 쉽다. 부모로서는 자녀 양육의 경험과 부모로서의 기능과 지식, 태도가 갖추어져 있어 자신감으로 양육에 임하게 되지만, 다소 소홀한 태도를 취하기 쉽다(유안진, 1983).

일반적으로 첫째아는 사회 압력에 약한 편이며, 책임감이 강하고, 권위에 대해서 긍정적

이고 그 중요성을 이해한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첫째아는 감정적이어서 분노를 쉽게 나타내는 경우가 많으며 적응력이 약할 수 있다. 둘째아는 태어날 때부터 혼자일 수가 없으며, 항상 위로부터의 도전을 받으며 자라게 된다. 형의 신체적 크기, 힘, 특권 등을 질투하며 형보다 많은 좌절을 받는 것이 둘째아에게 불가피하게 주어지는 환경이다. 한편 막내는 가족 내에서의 순위 형제들 혹은 또래 집단과 더 많이 동일시하면서 성장하며, 부모 이외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더 많은 자유를 가질 수 있다(김효진, 1999).

가족체계내의 개인의 발달에 있어서 출생순위와 형제관계는 의미를 갖을 수 있다. 형제자매가 갖는 상호작용의 빈도 및 강도는 사회-인지적 이해(social-cognitive understanding)의 성장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입장에서 출생순위에 있어서 첫째아, 둘째아, 막내인지, 또는 외동이인지에 따라 독특한 성격 특성을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 출생순위에 따라서 지능, 지적 성취 또는 성취 동기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그러나 출생순위와 형제자매 유무에 따른 개인의 특성 연구는 대개 불일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출생순위에 따른 개인 특성에서의 차이는 출생순위 자체가 직접적인 변인이라기보다는 출생 순위에 따른 부모의 양육 태도나 기대에서의 차이 등 다양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쳐 드러나는 현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체계는 자녀수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보다 개방적이 된다. 즉 형제자매가 가족의 상호작용 과정과 영역을 개방, 확대시킴으로써 가족 내의 상호작용과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과적으로 첫째아는 동생들보다

덜 개방적인 상태의 가족상황에서 사회화되는 셈이다. 이 점에서 첫째아는 동생들에 비해 보수적 경향을 지니기 쉽다. 특히 가부장적인 가족에서 맏이로서의 책임감은 그 특권만큼이나 무겁게 된다. 그러나 가족내 자녀의 출생은 가족 체계를 개방화시키게 되고, 이러한 개방경향성이 자녀가 많아질수록 커진다는 점에서 출생 순위에 따른 양육환경에서의 차이를 가져오고 진로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대 가족에서 부부 중심의 생활이 중시되고 출산율이 저조해지면서, 외동이를 둔 가족 또한 증가 추세에 있다. 대체로 외동이에 대한 부모들의 태도는 관대하기 쉽다. 외동이 자신도 외롭기 쉽고, 자신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특별하지 않음을 서로 가르쳐줄 형제를 갖지 못한 데에서 사회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응석받이 외톨이가 될 수 있다(Falbo, 1992). 그러나 외동이가 형제자매가 없기 때문에 사회성 발달이 느리고 자기중심적이 되기 쉬운 반면에 형제자매간의 경쟁심이나 질투에 의하여 성격이 비뚤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학자들 간의 공통된 견해이다.

일반적으로 외동이들은 제멋대로이고, 이기적이며, 응석받이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많은 연구들에서 그러한 편견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외동이들이 1)자부심 및 성취 동기에 있어 상대적으로 높고, 2)형제자매를 가진 아이들보다 더 고분고분하고 지능에서 약간 뛰어나며, 3)또래들과 매우 좋은 관계를 확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albo, 1992; Falbo & Polit, 1986). 중국에서도 1자녀 정책 이후 증가한 외동이들이 지적 능력 및 학교 시험에서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보다 약간 더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성격에 있어서도 큰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Jajo, Ji, & Jing, 1996). 여러 문화적 배경으로부터 얻은 자료들은 외동이들이 형제자매를 가진 아이들에 비해 불이익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결국 형제관계가 없다는 것이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에서 비롯되었던 외동이에 대한 시각은 점차 외동이가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더 긍정적인 발달을 보이고 있다는 시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결국 외동이를 갖게 된 원인이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음을 주지해 볼 때 형제관계에서 외동이의 발달 특성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가족내 출생순위에 따른 기대의 차이에서도 과거 전통적인 사회와는 다른 발달 특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근래 첫째아와 관련된 보수적 성향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진로의사결정 타협과정에서의 출생순위에 따른 선호도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흥미있는 작업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의사결정과 관련하여 개인이 진로타협의 주요 세요인인 직업의 사회적 명성, 성특성, 흥미에 있어서 어떤 선호도를 나타내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이러한 선호도에 있어서 성별과 가족내 출생순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느냐를 밝히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으로 교육 여건이 비교적 유사하다고 평가되는 경기도 K시와 인접한 Y시 소재 인문계 고등학교 5개교의 2학년 남녀 학

생 820명이 표집되었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18.2세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 정도였다. 수거된 설문지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지와 조사대상자가 3형제 이상인 경우를 제외한 결과, 총 719부의 설문지가 선택되었다.

측정도구

직업흥미

Holland 흥미이론은 미국인들의 직업흥미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한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문화간 타당도 평가결과, Holland이론이 예측하는 결과와 그에 따른 행동이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서민희, 2001).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직업선호도검사(행동과학연구소, 2001)는 Holland(1973)의 흥미이론에 따라 현실형, 탐색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그리고 관습형의 6가지 성격 유형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동영역, 유능성 영역, 직업영역, 선호분야영역, 그리고 일반성향영역에서 6가지의 성격유형을 측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흥미 영역을 잘 구분해주는 활동영역을 측정하여, 조사대상자의 성격유형을 측정하였다. 각 성격유형별로 7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직업흥미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8$ 로 나타났다.

직업선택타협

본 연구에서는 이기학과 조미량(2003)이 개발한 직업선택타협 척도를 사용했다. 이 측정도구는 개인이 진로 선택에서의 선호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직업의 사회적 명성, 성특성 그리고 흥미의 세 요인 가운데 선호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쌍별 비교로 구성된 것으로, 총

84개의 직업쌍을 비교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는 6개 흥미영역 각각에 대해 흥미의 일치/불일치 여부, 성특성(남성직업/여성직업), 사회적 명성(고/저)의 6개 직업에 대한 쌍별 비교를 하게 된다. 우선 각각의 직업쌍을 비교하여 선호하는 직업을 선택하게 한 다음, 선택된 직업이 조사대상자의 흥미와 일치하고, 성특성과 일치하고, 사회적 명성이 높을 경우에 1점을 부여하고, 그 반대일 경우는 0점으로 처리된다. 본 연구 얻어진 직업선택타협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74$ 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모든 자료 분석은 SPSS WIN 10.0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조사대상자 가운데 형제자매 수가 3명 이상인 경우와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후 719부의 설문지가 처리되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직업흥미검사 결과 흥미 유형이 명확하지 분류되지 않은 297 사례가 다시 제외되었다. 결과적으로 타협과정에서의 선호도에 관한 최종 분석은 422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선호도 점수는 진로선택타협 척도 각 문항에 대해 사회적 명성 일치인 경우 1, 아닌 경우 0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흥미 일치인 경우 1, 아닌 경우 0을 부여하였으며, 성특성 일치인 경우 1, 아닌 경우 0을 부여하였다. 예를 들어 현실형 성격유형을 가진 남학생이 항공기조정사(사회적 명성-고, 성특성 일치, 흥미 일치) 대 비행기승무원(사회적 명성-고, 성특성 불일치, 흥미불일치)에서 항공기조종사를 선택했을 경우, 사회적 명성에 1점, 성특성 일치에 1점, 흥미 일치에 1점을 부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타협의 각 요인의 검증문항, 즉 사회적 명성의 고저, 성특성의 일치,

및 흥미의 일치에 대한 문항들의 합을 구하였다. 각 요인별 합은 원점수 상으로 볼 때 사회적 명성이 48점, 성특성이 48점, 흥미가 16점이다. 그러나 분석시 각 요인의 최고점수가 다른데서 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요인의 합을 Z 점수로 변환하였다. 연구 설계는 연구 목적에 따라 삼원혼합설계 (three way mixed design)로 하였다. 즉 분산분석을 통해 진로타협과정에서 성별이나 출생순위에 따라 직업의 사회적 명성, 성특성, 흥미의

세요인에서 어떤 선호도를 나타내는지 알아 보았다.

결 과

성별, 출생순위, 진로타협 요인들과의 관계

성별과 출생순위를 집단간 변인으로 하고 사회적 명성, 성특성, 흥미 점수를 집단내 변

표 1. 성별, 출생순위에 따른 진로타협 3요인에서의 평균(원점수)과 표준편차

		진로타협		
		사회적 명성	성특성	흥미
성별	남 (n=170)	47.23(6.76)	40.50(6.8)	69.31(3.34)
	여 (n=252)	48.23(6.00)	47.53(6.14)	70.00(3.27)
출생순위	첫째아 (n=176)	49.19(6.37)	43.09(7.82)	69.98(3.25)
	둘째아 (n=193)	48.30(5.96)	46.29(6.42)	69.58(3.41)
	외동이 (n= 53)	48.23(7.18)	44.23(7.19)	69.36(3.13)

표 2. 성별, 출생순위에 따른 진로타협과정에서의 선호도 분석

분 산 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성 별	41.67	1	41.67	54.12 ^{***}
출생순위	.11	2	.05	.07
성별 × 출생순위	3.38	2	1.69	2.20
오 차	320.31	416	.77	
진로타협	2.42	2	1.21	1.21
진로타협 × 성별	27.25	2	13.62	13.77 ^{***}
진로타협 × 출생순위	10.22	4	2.56	2.58 [*]
진로타협 × 출생순위 × 성별	6.36	4	1.59	1.61
오 차	823.14	832	.99	

* p <.05, *** p<.001

인으로 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성별과 출생순위에 따른 진로타협 3요인에서의 원점수는 표 1에 제시되었다. 분석결과, 성별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_{(1, 416)} = 54.12, p < .001$), 출생순위와 진로타협의 주효과는 없었다. 성별과 진로타협 요인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했으며($F_{(2, 832)} = 13.77, p < .001$), 출생순위와 진로타협 요인간의 상호작용도 유의미했다($F_{(4,832)} = 2.58, p < .05$). 성별, 출생순위, 진로타협간의 삼원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주효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해석하지 않을 것이다.

진로타협과정에서의 성별에 따른 선호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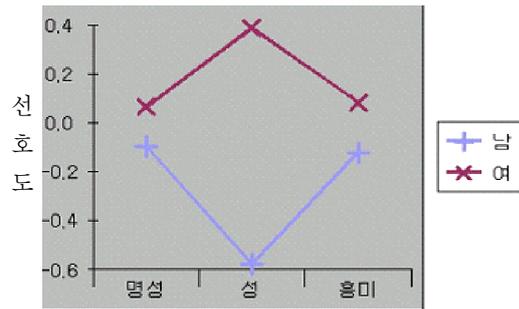
출생순위에 따른 진로타협 세 요인의 점수는 표 3과 같다.

성별과 진로타협 요인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개략적으로 알아보면(그림 1), 진로타협 3요인의 선호도 점수에서 여학생의 성특성 점수가 남학생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명성과 흥미에서는 여학생과 남학생의 선호도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성별에 따른 진로타협과정의 선호도 점수

	남학생	여학생
사회적 명성	-1.10(1.07)	.06(.95)
성특성	-.58(.93)	.39(.84)
흥 미	-.12(1.01)	.08(.99)

Z-score(표준편차)



진로타협의 3요인

그림 1. 성별에 따른 진로타협과정

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에서의 개략적인 결과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 명성, 성특성, 흥미 가운데 어떤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지

표 4. 성별에 따른 진로타협 3요인의 대비분석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남	명성 대 성	39.58	1	39.58	22.06***
	명성 대 흥미	.14	1	.143	.06
	성 대 흥미	34.97	1	34.97	16.55***
여	명성 대 성	26.70	1	26.70	11.86***
	명성 대 흥미	.10	1	.10	.05
	성 대 흥미	23.59	1	23.59	16.07***

*** p<.001

를 알아보기 위해서 성별에 따라 진로타협과정의 3요인간 대비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표 4), 남학생의 경우 사회적 명성 대 성특성($F_{(1, 168)} = 22.06, P < .001$), 성특성 대 흥미($F_{(1, 168)} = 16.55, P < .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직업의 성특성이 사회적 명성이나 흥미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학생의 경우, 사회적 명성 대 성특성($F_{(1, 220)} = 11.86, p < .001$), 흥미 대 성특성($F_{(1, 220)} = 16.07, p < .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직업의 성특성이 사회적 명성이나 흥미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남녀 모두에서 사회적 명성 대 흥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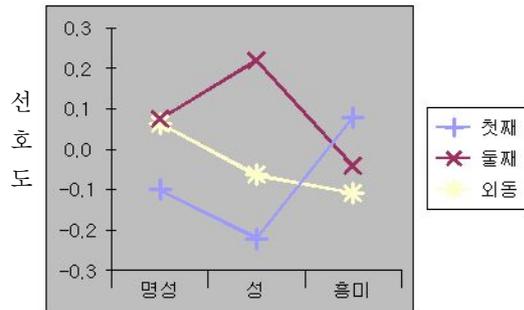
진로타협과정에서의 출생순위에 따른 선호도 차이

출생순위에 따른 진로타협 세 요인별 점수가 표 5에 제시되었다.

표 5. 출생순위에 따른 진로타협과정의 선호도 점수

	첫째아	둘째아	외동이
사회적 명성	-.10(1.01)	.07(.95)	.06(1.14)
성 특성	-.22(1.08)	.22(.88)	-.06(.99)
흥 미	.08(.98)	.04(1.03)	-.11(.95)

Z-score(표준편차)



진로타협 과정의 세 요인

그림 2 . 출생순위에 따른 진로타협과정

표 6. 출생순위에 따른 진로타협과정의 대비분석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첫째아	명성 대 성	2.55	1	2.55	1.18
	명성 대 흥미	5.68	1	5.68	2.76
	성 대 흥미	15.84	1	15.84	8.29**
둘째아	명성 대 성	4.05	1	4.05	1.88
	명성 대 흥미	2.63	1	2.63	1.28
	성 대 흥미	13.20	1	13.20	7.63**
외동이	명성 대 성	.86	1	.86	.33
	명성 대 흥미	1.55	1	1.55	.54
	성 대 흥미	.10	1	.10	.06

** p < .01

출생순위와 진로타협 3요인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개략적으로 알아보면(그림 2), 첫째아는 흥미, 사회적 명성, 성특성의 순서로 선호도 경향성을 나타냈다. 둘째아는 성특성, 사회적 명성, 흥미의 순서로, 외동이의 경우 사회적 명성, 성특성, 흥미 순의 선호를 보였다. 성특성의 경우 첫째아보다 둘째아의 점수가 높았다. 사회적 명성에서는 첫째아와 외동아가 비슷한 점수를 보였다. 흥미에 대한 선호도 점수에서는 첫째아, 둘째아, 막내아에서 모두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의 개략적인 결과에서 더 나아가, 출생순위에 따라서 사회적 명성, 성특성, 흥미 가운데 어떤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출생순위와 관련하여 진로타협과정의 3요인간의 대비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표 6), 첫째아의 경우 성특성 대 흥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_{(1, 174)}=8.29, p<.01$). 즉 흥미가 성특성보다 선호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명성 대 흥미, 명성 대 성특성에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둘째아에서도 성특성 대 흥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_{(1, 191)}=7.63, p<.01$), 명성 대 흥미, 명성 대 성특성에서는 첫째아와 마찬가지로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한편 외동이의 경우 진로타협의 대비 조건 어느 것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논 의

진로선택은 개인이 자신의 자아 정체감(self identity)을 형성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과정으로서(Super, 1984), 생애진로를 결정하는데 결정적

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진로선택과정은 개인의 직업적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변인인 흥미, 직업적 성특성, 그리고 사회적 명성과의 일치 정도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Gottfredson, 198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직업 대안들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하는 선택갈등 상황에서 일어나는 타협과정에서 성별과 출생순위에 따라 직업의 사회적 명성, 성특성, 흥미의 3요인에서 어떠한 선호도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진로타협과정의 선호도에서 남녀 차이를 밝혀냈다. 즉 남학생은 사회적 명성과 성특성, 흥미와 성특성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진로갈등 상황에서 사회적 명성 > 흥미 > 성특성의 순서로 선호도를 보였다. 반면에 여학생은 성특성과 흥미, 성특성과 사회적 명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성특성 > 흥미 > 사회적 명성의 순으로 선호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Gottfredson(1981)이 초기의 타협이론에서 제안한 성특성, 사회적 명성, 그리고 흥미의 순서와는 불일치하지만, 남학생의 경우 이기학, 조미량(2003)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한다. 남학생의 경우 사회적 명성이 우선시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에 기인하여 사회적 명성이 진로선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는 기존의 연구(탁진국, 1995)와도 일치되는 결과이다. 이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보다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강조하는(Gysbers, Heppner, & Johnston, 1998) 동양적 사상이 남학생 집단에서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타협과정에서 사회적 명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타협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요소라는 기존의

주장들과는(탁진국, 1995; 홍두승, 1983) 다소 다르게 흥미 요인도 중요시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한편 여학생들의 경우 특별히 직업의 성특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자신의 성별과 일치하는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Leong, 1988; Taylor & Pryor, 1985)과 일치하고 있다. 이는 근래 사회적 여건이 많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학생들의 경우 사회적 명성이 다소 낮더라도 더 여성적이라고 여겨지는 직업을 선호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이러한 남녀차이는 개인의 직업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직업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직업 가치관에서의 남녀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개인적 가치보다도 승진, 명예, 그리고 봉급과 같은 사회적 가치에 더 의미를 부여한다. 이에 비해 여성은 외적인 가치보다는 자아실현, 자기만족 등과 같은 개인적 가치에 더 의미를 둔다(이기학, 한종철, 1997; Leong, 1993). 본 연구 결과에서도 직업 가치관이 진로를 선택하는 타협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남성의 경우 사회적 명성이 높은 직업의 선택을 선호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자신의 성특성이나 흥미와 일치하는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이 반영되고 있다. 즉 이번 연구를 통해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진로선택에 있어 여전히 자신의 성과 일치하는 성 특성을 중시한다는(신현아, 1992; 이주경, 1998; 이홍림, 1986) 결과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진로타협과정의 선호도에는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기존의 연구들이 진로타협과정에서의 여러 변인들을 살펴봐왔지만, 국내 연구에서는 출생순위에 따

른 진로타협에서의 차이를 밝힌 연구는 거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장적인 가족 질서가 여전히 가족관계 기저에 흐르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출생순위에 따른 가족의 기대와 가치가 직업 선택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얻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타협과정에서 첫째아와 둘째아, 그리고 외동이가 보이는 선호도의 경향성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갈등 상황에서, 첫째아는 자신의 흥미> 사회적 명성> 성특성의 순으로, 둘째아는 성특성> 사회적 명성> 흥미의 순을 보였다. 외동이의 경우 사회적 명성> 흥미> 성특성의 순서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첫째아의 반응 경향성은 남학생 집단에서 보인 반응 경향성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타협과정의 대비분석에서 둘째아는 흥미보다 성특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특성, 사회적 명성, 흥미의 순으로 진로를 타협한다고 주장한 Gottfredson(1981) 입장과 통한다. 최근 Gottfredson(1996)이 제시한 타협원리에서도 입증되었듯이, 사람들은 많은 타협을 요구하는 진로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지위나 성역할의 범위를 축소하기 보다는 자신의 흥미 영역에 있는 진로부터 포기한다고 한다. 낮은 사회적 지위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완전히 반대의 성역할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하기 보다는 사회적 지위를 포기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첫째아의 경우 진로갈등 상황에서 오히려 성특성보다 자신의 흥미와 일치하는 진로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왔다. 출생순위에 따른 진로선택 선호도를 조사한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첫째아에 대한 기대치가 다른 자녀들에 비해 높고(김순희, 2000), 따라서 첫째아가 사회적 명성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식적 예측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첫째아가 진로선택에서 자신의 흥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래 한 개인의 진로가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에서 진로 발달의 개념으로 바뀌면서, 자신의 흥미를 중요시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 선택이라는 의식의 확산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가족 구조상 핵가족이 보편화되면서 출생순위에 대한 개념자체가 희석되면서 첫째아에 대한 보수적인 기대보다는 진로선택에서 보다 자율적 선택이 허용되고 있음을 함의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둘째아의 경우는 첫째아와의 경쟁관계 속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진로타협시에 보다 보수적인 방식으로 성특성에 대한 선호를 보이면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출생순위에 따른 성별구성과 형제자매들간의 연령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른 특성들이 혼입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전체 조사 대상 중 형제자매수가 2명 이하인 집단으로 분석사례를 제한함으로써 다자녀 조건에서의 출생순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으므로 일반화에는 다소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덧붙여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경우, 진로 흥미영역에 있어 분명한 자아개념을 확립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아 전체 조사대상 719명 중에서 상다수인 297명이 제외된 것을 감안해볼 때, 본 연구결과로 전체 고등학생의 진로선택 패턴을 설명하는 데는 제약이 따를 것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Gottfredson(1981) 이론만으로 진로타협을 설명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음은 분명해졌다. 이같은 문제점과 관련하여 Vandiver와 Bowman(1996)은 타협과정에 대해 새로운 설명을 시도하면서, 타협의 우선순위가 각 개인의 고유한 인지적 도식(schema)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각 개인이 발달과정을 통해 형성시킨 진로자아개념이 보편성보다는 고유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본 연구는 Gottfredson(1981)이 제안하였듯이 진로타협과정이 단선적인 것보다 개인의 특성과 문화적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보다 복잡한 과정임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수 있다.

현재까지 진로타협과정에서의 성별 차이, 흥미 영역의 매개역할, 문화적 배경의 영향력, 타협의 심각도에 따른 타협 우선순위의 변화, 인지적 도식의 개인차 등이 제시되고는 있으나, 이들 변인에 대해 경험적인 검증은 불충분한 상태이다. 특히 진로선택의 문제는 개인의 자아실현과 직접 관련된다는 점에서 직업의 성특성에 대한 선호도에서의 남녀간의 차이는 중요한 쟁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진로타협에서의 젠더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문화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체계적인 후속연구가 요청된다.

참고문헌

- 김순희 (2000). 유아의 출생순위와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기대와 교육수행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진 (1999). 청소년의 출생순위와 성에 따른 자아개념, 학교생활 적응능력 및 사회적 능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 학위논문.
- 서민희 (2001). 한국 고등학생들에 대한 Holland 직업흥미이론의 문화간 타당도 평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현아 (1992). 고등학생의 성역할 유형과 그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안진 (1983). 육아론. 서울. 민음사.
- 이기학, 조미랑 (2003). 인문계 고등학생의 진로 의사결정 타협과정에서 보이는 남녀 간 선호도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3), 1-13.
- 이기학, 한종철 (1998).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개인적 특성 및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0(1), 167-189.
- 이주경 (1998). 직업선호도와 직업선택에 영향을 주는 제요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홍림 (1986). 고교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자아 실현성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탁진국 (1995). 한국 대학생의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8(1), 161-174.
- 한광희, 양은주, 최송미 (2001). 신입생의 진로 의식에 대한 태도 연구. 연세상담연구, 제 17권, 3-18, 연세대학교 학생상담소.
- 행동과학연구소 (2001). 직업선호도검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홍두승 (1983). 한국사회계층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 한국사회의 전통과 변화. 서울; 법문사.
- 황매향, 김계현 (2001). 진로 의사결정에서의 타협과정에 관한 연구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11-124.
- Falbo, T. (1992). Social norms and the one-child family: Clinical and policy implications. In F. Boer & J. Dunn(Eds.), *Children's sibling relationships*. Hillsdale, NJ: Erlbaum.
- Falbo, T. & Polit, D. F.(1986). Quantitative review of the only child literature: Reearch evidence and theory development. *Psychological Bulletin*, 100, 176-189.
- Gati, I. (1993). Career compromis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 416-424.
- Gati, I., HOuminer, D., & Aviram, T. (1998). Career compromises: Framings and their implic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505-514.
- Ginzberg, E., Ginsburg, S. W., Axelrad, S., & Herma, J. L.(1951). Occupational choi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Goffredson, L. S., & Holland, J. L. (1996). *Dictionary of Holland occupational codes*(3rd ed).Odessa, FL: Psychological Assesment Resources.
- Goffredson, L. S.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545-579.
- Gysber, N. C., Heppner, M. J., & Johnston, J. A. (1998). Career counseling: Process, issues, and techniques. MA: Allyn & Bacon.
- Hesketh, B. & Durant, C. (1990). Career compromise: A test of Gottfredson's (1981) theory using a policy-capturing procedur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6, 97-108.
- Hesketh, B. & Elmsile, S., & Kaldor, W. (1990). Career compromise: An alternative account to Gottfredson's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 Psychology*, 37, 49-56.
- Holt, P. A. (1989). Differential effect of status and interest in the process of compromis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42-47.
- Holland, J. L. (1973). *Making vocational choices: A theory of career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Jacobs, B. S., & Moss, H. A. (1976). Birth order and sex of sibling as determinants of mother-infant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47, 315-322.
- Leung, S. A., Plake, B. S. (1990). A choice dilemma approach for examining the relative importance of sex type and prestige preference in the process of career choice compromis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399-406.
- Leung, S. A. (1993).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replication study with Asian America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 188-193.
- Osipow, S. H., & Fitzgerald, L. F. (1996). *Theories of career development* (4th Ed). MA: Allyn & Bacon.
- Rowe, D. C., & Plomin, R. (1981). The Importance of nonshared environmental influence in behavior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5, 517-531.
- Super, D. E. (1984). *Career and life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8, 185-190.
- Stephan, C. W. & Holhan, C. K.(1982). The influence of status and sex-typing on assessments of occupational outcome, *Sex Roles*, 8, 8, 823-833.
- Taylor, N. B., & Pryor, R. G. L. (1985). Exploring the process of compromise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7, 171-190.
- Vandiver, B. J., & Bowman, S. L. (1996). A schematic reconceptualization and application of Gottfredson's model. In M. L. Savickas & W. B. Walsh(Eds.), *Handbook of career counseling theory and practice*. Palo Alto: Davices-Black.

Gender and Birth Order Differences in the Preference Level of Career Compromise

Mi Yeon, Kim

Hee Jeong, Bang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based on Gottfredson's(1981) postulation which concludes that individuals were most likely to compromise either the sex type or the prestige of occupations or one's preference for a certain field of work when they should choose their occupations based on their realistic limitations. We investigated the difference in gender and birth order preference regarding the compromise in career decision making of high school students in liberal arts field. Participants were questioned about their interests, sex types of occupation, and social prestige which enabled to measure the compromise process. In order to measure the compromise process, this study used questionnaire developed by Lee Ki-Hak. As a result, participants preferred interests, social prestige, and sex type of occupation respectively, a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gender. When male students had a preferred in social prestige, interests, and sex type of occupation in order, female students had a preferred sex type of occupation, interests, and social prestige respectively. Also first born students had a preferred interests, social prestige, and sex type of occupation. Second born students had a preferred sex type of occupation, social prestige, and interest. The only child had not special preference in a certain choice. In conclusion, this results imply there was a gender difference and birth order effects on final considering factor of making a career decision.

key words : career decision making, compromise process, gender, birth order

1차 원고접수: 2005. 5. 15.

심사통과접수: 2005. 6. 1.

최종원고접수: 2005. 6. 15.